

기독교 세계관의 간호학적 적용에 대한 논평

안영미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1998년 WHO에서 건강의 개념을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의 상태를 건강으로 정의한 이래 spiritual wellbeing이 간호의 core concept이 되면서 간호연구의 주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저자가 지적하신 대로 영적간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구체적 접근 방법을 알 수 없어 한계에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8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영적간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지속적 연구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영적간호가 간호학의 연구, 교육, 실무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기위한 기초조사로서 본 연구를 실행하였습니다.

연구분야에서의 적용을 알아보기 위해 간호학의 메타파라다임인 인간, 건강, 간호, 사회환경에 관한 문헌고찰을 하였으며, 교육분야의 적용을 알아보기 위해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육과정 설명과 [기독교 세계관과 영적건강]과목의 운영의 실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분야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을 알아보기 위해 간호진단체계의 틀(사정, 간호진단, 목표수립, 계획, 수행, 평가)을 가지고 영적간호과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영적간호라는 타이틀 아래 이루어진 연구들을 정리해 보고, 실제 간호학생들에게 적용해보고, 또한 모호한 영의 개념을 과학적 과정(간호과정)에 적용해 보려는 저자의 연구 아이디어와 시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논자는 저자의 연구에 근거하여 저의 생각을 저자가 구분하신 연구, 교육, 실무적 측면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연구에 있어, spiritual wellbeing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정의와 이론정립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에 '기독교적'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크리스천 연구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 이외의 다른 누군가가 만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삶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건강, 영적간호에 있어 그 앞에 '기독교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자는 영적영역이 신체, 정신, 사회와 완전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의 영역에서 영적간호를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전인건강, 전인간호((w)holistic nursing)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교육에 있어, Erickson(1969)은 청소년기를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소명과 그 뜻을 찾아가야하는 시기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학입시라는 명목하에 청소년들의 사고의 반경을 제약하고 있어 사실상 대학에 들어와서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지를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자가 신입생에게 가르치신 [기독교세계관과 영적건강]이라는 교과목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성인초기로 미뤄진 한국현실에서 시의 적절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 교과목이 좀 더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과목 명칭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와 같이 전인건강(간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어떨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둘째, 저자가 교과목평가에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교재의 부족, 운영의 비체계성은 교과목을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제 교과목을 운영하기에 앞서 교재 및 교수법 개발에 관한 연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과목운영 평가도 강의 만족도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한 명확성을 두고 그 정도를 교과목운영 전과 후의 사전사후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용에 있어서, 저자는 간호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을 영적간호에 적용하였습니다. 간호과정은 간호실무에서 대상자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적간호는 영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으로 인해 실무에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호사라면 간호과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사전 지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호과정 적용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연구 주제는 실존적 공허(Frankl, 1959)와 거짓 신들(Keller, 2011)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바로 행동에 옮기기에 앞서 마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과 같이 확고한 이론확립을 한 뒤에 교육과 실무가 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